

픽취레스크(Picturesque)미학에 나타난 실내디자인 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f Interior Design Characteristics from Picturesque Aesthetical Perspective

Author 우창옥 Woo, Chang-Ok / 정희원,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실내건축설계학과 박사수료
박형진 Park, Heung-Jin / 정희원, 인하공업전문대학 실내디자인학과 조교수

Abstract There has been current trend running through each generation. All the leading areas in the fashion, art, architect industries etc. are absorbing the needs of the mass users and getting popular and high attentions from the society.
One of recent trends are the interior design utilizing the aged style of materials such as bricks, antique and vintage objets. It is applied not only for the cafeteria, movie theater, museum but the cultural space. It reflects the brand-new and Utopian interpretation of design longings for the nostalgia and the old ages.
This goes back to the picturesque aesthetics in the 1980s. The term "picturesque" means "picture-like". And it originated from the Utopian vision taken from the landscape paintings of English aristocrat's trip to Europe. It mainly reflects people's longing for the nostalgia and their the happy days in the past. In recent days of bad economies, it has been found in various areas from people's desire for the prosperity in the last day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up-current trend of picturesque aesthetics and see its characteristics and how it can be applied to the interior design. And the feasibility study for the necessity of the picturesque aesthetics, any spatioperceptual elements and capable space for human beings to be made for an eclectic space in the desolate modern day life.

Keywords 실내디자인, 픽취레스크, 유토피아, 트렌드
Interior Design, Picturesque, Utopia, Trend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시대적으로 그 시기를 관통하는 흐름이 있다. 사회적, 정서적 흐름에 따라 패션, 미술, 건축 등 트렌드를 선도하는 분야는 대중들의 욕구를 수용하며 그 시기에 이슈가 되고 유행이 되기도 한다.

최근에 생겨나는 카페나 영화관, 박물관 등 식음공간 뿐만 아니라 문화공간의 실내디자인을 보면 파벽돌을 사용하거나 옛것과 같은 소품 또는 실제 오래된 재료들을 사용하여 공간을 디자인 하는 경향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디자인의 형태는 과거의 향수와 옛것에 대한 유토피아적인 이상향의 새로운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실내디자인의 특성은 과거 18세기 픽취레스크 미학에서 찾아볼 수 있다. 픽취레스크는 '그림과 같은'이

라는 의미로 과거 영국 귀족들이 유럽여행을 통해 본 유명화가들의 풍경화에 나타난 자연에 대한 유토피아적 이상향에서 시작하게 되었다. 이러한 부분은 과거에 대한 향수와 가장 행복했던 시절의 이상향을 향한 사람들의 생각을 반영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성향은 최근의 어려운 경제와 과거의 호황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의 욕구에 의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공간적으로도 다양하고 폭넓게 픽취레스크의 건축적 미학이 적용되고 있으며, 최근 들어 CJ그룹의 브랜드들은 과거의 것을 재현하여 사람들에게 친근감을 줄 수 있는 컨셉을 바탕으로 대대적인 리노베이션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렇듯 실내디자인의 특성에 나타난 픽취레스크 미학은 대중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또한 많은 분야에서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 이러한 성향을 보면 요

즘의 트렌드의 흐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픽취레스크 미학을 살펴보고 이에 나타나는 특성, 표현방법이 실내공간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조사해보고 현대사회의 픽취레스크 미학의 필요성과 ‘공간’으로써 제시해야할 요소, 인간에게 필요한 ‘장소’로서의 타당성을 연구하여 현대 사회에 만연한 삭막한 분위기의 절충적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부분에 그 의의가 있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최근 많은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픽취레스크 미학에 따른 디자인의 동향을 고찰해 보고 실내디자인에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분석해보고자 한다. 우선 그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전문서적, 각종 학회지 논문, 세미나 자료, 정기간행물 등의 내용을 근거로 한 다양한 분야의 디자인 적용사례를 분석하였고 그에 따라 나타나는 공간적 특성을 도출하여 실내디자인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특징들을 분석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의 범위를 설정하고자 한다.

첫째, 사람들은 빠르게 변화하고 모든 것이 하나로 조작 가능한 스마트 시대에 살면서 편한 것을 뒤로 하고 옛날 감성의 아날로그적인 부분을 추구하고 있다. 하지만 불편을 감수하며 옛날 것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데에 있어서는 편리성을 갖추고 디자인적인 면에서는 옛 감성이 묻어나는 새로운 형태를 선호하고 있다.

둘째, 이러한 새로운 개념의 디자인 성향을 픽취레스크 미학에서 나타나는 과거의 이상향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바탕으로 공간에 적용할 수 있는 특성과 표현방법이 무엇인지 분석해본다.

픽취레스크 미학에서 나타나는 이상향은 옛것에 대한 그대로의 반복이 아닌 현대에 기준을 둔 과거의 재현이라는 것에 대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은 또 다른 의미로 현대인들이 과거의 것을 이용하면서 불편을 감수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기에 편리한 과거의 것을 의미하고도 한다.

18세기 낭만주의 시대에 나타난 픽취레스크를 보면 이러한 디자인의 성향을 알 수 있다. 건축적 미학의 개념인 픽취레스크의 의미를 보면 자연적인 부분과 인위적인 부분을 잘 조화시켜 사람들에게 감성적, 인지적인 부분을 충족시키고 또한 편의성까지 제공하는 특성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을 통해 도시공간에 계획된 것이 픽취레스크 조경형식이다. 이러한 의미를 바탕으로 도시 공간적 부분으로 확대시켜 발전시킨 것이 어번픽취레스크이다.

셋째, 앞서 말한 공간적 디자인의 특성인 어번픽취레스크의 특성을 살펴보고 이러한 특성과 표현방법이 실제 유사하게 디자인되어 있는 공간을 분석하여 이론적으로 나타나는 특성과 실제 적용가능한 부분에 대한 형태를 조사하여 분석한다.

이에 따라 공간을 분석하여 픽취레스크 미학에 나타나는 실내디자인의 특성을 통해 도시 속 실내공간이 단순한 업무, 주거, 식음 공간이 아닌 사람들에게 더욱 친근하고 따뜻한 공간으로써 변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픽취레스크(Picturesque) 미학으로 본 실내디자인

픽취레스크는 조경에서 다루는 용어로 한마디로 정의 내리기란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18세기의 영국식 정원의 양식을 픽취레스크와 동일한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픽취레스크라는 용어는 정원이 조성되고 그 후에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언급된 용어이기에 정원양식을 일컫는 용어와는 차이가 있다.¹⁾

그럼 이 ‘그림과 같은’이라는 의미의 픽취레스크는 어떠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디자인 경향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에 영향을 미쳤으며, 다시금 언급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17세기 프랑스의 정원 양식을 보면 기하학적이고 정형적인 형태의 정원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18세기의 영국식 정원 양식을 보면 프랑스 정원과 상반되게 자연을 그대로 담은 형태를 취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정원양식의 변화는 프랑스 정원양식에서 보여지는 인간의 지배적인 야망에 대해 반성하고 과거로의 회귀, 이상향에 따른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역사가 반복되듯이 최근의 우리사회에서도 보여지고 있다.

도시의 팽창과 과도한 성장에 따라 기하학적이고 정형적으로 발전한 도시에서 사람들이 이제는 한숨을 고르고 뒤를 되돌아 볼 시기에 도달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기하학적인 도시의 형태와 모던한 실내디자인의 형태가 자연친화적이고 복고적인 성향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과거 픽취레스크의 의미를 빌어 최근에 나타나는 실내디자인특성에 대해 연구해보고자 한다.

2.1. 픽취레스크(Picturesque) 미학의 개념

픽취레스크(Picturesque)의 의미는 18세기 영국에서 등

1) 김영재, 도시 보행자가로의 체험에 있어서 ‘어번픽취레스크’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논문, 2008, p.26

장한 미적 개념이다. 초기에는 픽취레스크의 취미라는 하나의 양식적 스타일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으며, 18세기 말에 본격적으로 픽취레스크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미적 개념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리하여 18세기에 나타나는 픽취레스크의 의미는 시기에 따라 그 의미가 조금씩 다르게 정의되고 있지만, 가장 널리 정의되고 있는 부분은 영국인들이 대여행(Grand tour)²⁾을 하면서 나타나는 정원 양식을 일컫고 있다. 그리하여 픽취레스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원 그대로 ‘(Picturesque) 그림과 같은’이라는 의미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의미는 기존의 공간구성이 인간중심의 인위성을 강조한 프랑스의 정원 양식으로 고전주의나 기하학적인 양식과 대비되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

픽취레스크는 자연환경까지도 모든 것을 인간이 지배하고 조정한다는 의미를 반성하고 자연친화적이고 원형 보존 그대로의 형태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면서 생겨난 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 영국식정원 (Stourhead Garden)

<그림 2> 프랑스식정원 (Palace and Park of Garden)

한걸음 더 나아가 원형 그대로 자연 형태를 추구하는 것뿐만 아닌 인간이 자연의 원형을 잘 이용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 인위성이라고 할 수 있다.

픽취레스크의 의미를 바탕으로 한 정원은 체험자로 하여금 경관의 다양성을 느끼게 하고 있으며, 픽취레스크의 미적 개념은 시간을 통한 공간의 체험을 중시했고, 이를 흥미롭게 만들기 위해서 공간 및 세부요소가 다채롭게 발전하게 됐다.

픽취레스크의 의미를 담은 주요 이론가 및 정원을 구축한 조경가로는 윌리엄 켄트(William Kent, 1600~1682), 란셀렛 브라운(Lancelot Brown, 1594~1665), 윌리엄 길핀(William Gilpin, 1724~1804), 나이트(Richard Payne Knight, 1750~1824), 프라이스(Uvedale Price, 1747~1820), 랩턴(Humphry Repton, 1752~1818) 등으로 대표되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 켄트(William Kent)는 풍경화를 모델로 한 풍경정원의 창시자로 ‘픽취레스크’를 자연과 건축의 질에

있어서 ‘거칠음(roughness), 다양함(variety), 복잡함(intricacy)’을 강조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³⁾

길핀은 상상력의 즐거움과 바탕색조(tint)가 느껴지는 공간으로 풍경에 대한 상상력을 고양시키는 것으로 풍경의 구성을 시각적 체계로 분류하여 완전히 자연스러운 정원이라기보다는 인공의 요소가 적절하게 혼합되어 있는 공간으로 주요장면에 건물 등의 인공적 요소를 도입하였다.

나이트는 무미건조한 풍경대신 관람자에게 많은 것을 연상시키는 풍경화에 가까운 장면으로 정원을 구성할 것을 주장하였다.

프라이스는 픽취레스크를 숭고와 미의 두 가지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다양함과 복잡성(variety and intricacy)], [갑작스러움과 불연속성(sudden and broken)]이라고 정의하였다. 복잡함과 다양함은 ‘즐거움의 원천이자 호기심을 유발하는 것’이며 복잡함의 아름다움이란 ‘시선을 무질서하게 우거진 것으로 이끄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배치상의 복잡함과 대상의 형태, 색조, 빛, 그림자 등에 있어서의 다양함을 픽취레스크한 경관의 큰 특징으로 생각하였다.⁴⁾

랩턴은 픽취레스크의 불합리함을 거부하고 형식주의적 요소를 다시 도입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정원으로 최대한 우아하고 편리하면서도 원예에 적합한 정원을 주장하였다.

이렇듯 픽취레스크의 의미를 엮두 해둔 개념이 발전함에 따라 초기에는 곡선적인 자연 친화에 그 의미를 두었었지만, 그 후에 다양하게 발전하여 18세기 말, Gilpin, Price, Knight 등을 통해 픽취레스크의 개념은 ‘거칠음’, ‘복잡함’, ‘다양함’, ‘갑작스러운 변화’ 등의 특성을 지니는 의미⁵⁾로 이해되었다.

<표 1> 픽취레스크 특성

이론가	공간구성요소	특징	형태
켄트	공간의 거칠음, 다양성, 복잡함	고전+풍경을 혼합, 미학적 선을 중시	테라스, 파르테르, 조각상, 동굴, 사원
길핀	공간에 대한 상상력, 즐거움, 다양한 색상	다양성 추구, 자연과 인공의 조합으로 풍요로움 강조	거친표면의 바위, 명함의 대조, 뒤틀린나무
나이트	공간의 사용자에 대한 배려, 입장	주관적인 풍경의 표현, 빛과 색채 강조	거친 숲, 골짜기, 오두막
프라이스	공간의 다양성, 갑작스러움	복잡함, 다양함, 갑작스러운 변화	회화적인 요소(색채, 필치, 균형, 원근감)
랩턴	공간의 실용성, 합리주의적 요소	이상적이고 합리적인 부분 강조, 미학과 공간을 동일시 함	브라운파 사라진 테라스와 파르테르 다시 사용)

불규칙성(irregularity)과 다양성(variety)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 18세기의 낭만주의 조경인 픽취레스크는 사실

2) 대여행(Grand tour)은 18세기 유럽에서 귀족들을 중심으로 널리 유행했던 호화로운 여행이다. 북유럽, 동유럽 귀족들이 로마문화에 열등감을 느껴 이탈리아와 프랑스의 선진 문화를 익히기 위하여 유학을 가는 것에서 비롯되게 되었다. 특히 영국인들은 이탈리아의 풍경화 및 풍경을 접하고 나서 자국의 시골의 풍경을 풍경화를 연상시키는 곳으로 개조하기 시작한다.

3) 황주영, ut pictura hortus : 18세기 영국 풍경식 정원에 관한 연구, 미술사학보 26집, 2006, p.185

4) 김진희, 영국 풍경식 정원의 미 ‘픽취레스크’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1995, p.125

5) 자연, 풍경, 그리고 인간, 마순자 역, 대우학술총서, 2000

공간적인 부분으로 보기보다 미학을 바탕으로 한 인위적인 자연환경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연환경을 좀 더 도시환경으로 접근하여 재정의하고 표현한 것이 19세기 도시가로형태에 적용된 ‘어번픽취레스크’라는 개념으로 불리게 되었다.⁶⁾

2.2. 픽취레스크의 공간으로의 영향

앞에서 살펴본 픽취레스크 이론⁷⁾은 자연경관과 풍경에 대한 영국적 애착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동적인 혼동이나 비대칭이면서도 균형을 유지하는 구성을 선호하며, 건축물이 경관을 압도하는 것이 아니라 경관에 포용되는 것을 타당하게 본다.⁸⁾ 낭만주의 혹은 경험주의를 특징으로 하는 픽취레스크의 미적 개념은 이후 건축과 도시분야에 영향을 끼치게 되고 중세기의 픽취레스크한 구성을 중시하게 되었다. 픽취레스크 이론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18세기 이후에 일종의 낭만주의의 건축·환경운동인 ‘예술공예운동’이 벌어졌으며, 이러한 건축운동은 산업혁명으로 인해 황폐해진 비인간적 환경에 저항하는 동시에 바로크적 양식의 답습으로부터 벗어나길 바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사고는 기본적으로 중세적 환경을 동경하였으며 낭만주의적인 것이었다.

이렇듯 과거의 것을 동경하는 것은 인간본연에 내재되어 있는 감성의 심리적 가치를 부흥하고자 하는 열망에 따라 자주 나타난다.

이러한 맥락으로 시대의 흐름을 보면 클래식->모던->클래식->모던과 같이 빅토리아시대의 양식이 1920~30

할리-이성	낭만-감성	할리-이성	낭만-감성	할리-이성	낭만-감성	할리-이성	낭만-감성
B.C 3000-476	313-15C	15C-17C	17C-18C	18C	19C	20C	1960C-
그리스 & 로마	중세 (조-고딕)	르네상스	바로크 (로코코)	신고전 주의	낭만주의	모더니즘	POST 모던

<그림 3> 디자인 사조

년대의 아르누보 및 아르데코의 양식으로, 1940~50년대의 유기적인 형태나 곡선들이 1960년대에 다시 아르누보 양식으로 부활하는 것을 알 수 있다.⁹⁾

양식과 스타일들이 완벽히 똑같이 재현되지는 않지만 과거의 형태나 형식들이 계속 반복되는 역사를 보면 과거로의 회귀나 열망은 사람들에게 과거의 향수적 이미지의 감성을 자극하는 디자인으로 변모하여 유행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다.

‘불규칙성(irregularity)’, ‘다양성(variety)’의 속성을 기반으로 한 픽취레스크 건축적 미학 개념은 19세기 도시형태에도 영향력을 끼치게 되며, 이는 곧 ‘어번픽취레스크’가 등장하는 배경이 되었다.(Issacs, 2000) 이 개념은 픽취레스크한 구성이 정원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도시전체의 환경에 영향을 주는 계기가 되었다.

그 결과 기하학적이고 정형적인 권위주의 도시형태에 대한 반동으로 출현한 ‘낭만주의적’ 혹은 ‘유기적’ 도시계획이론이 나타나게 되었다.¹⁰⁾

레이몬드 이삭(Isaacs, R)은 어번픽취레스크를 픽취레스크의 시각적 특성이 도심가로 공간구성 형태에 적용되었을 때 보행자에게 보행의 연속성과 미적 체험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보고 그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첫째, 인간은 개인과 문화적 경험에 의해 형성되어진 가장 기본적으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미적 본능을 소유한다. 둘째, 도시공간의 일부 형태구성은 다른 구성에 비해 높은 집중의 경험과 미적 체험을 유발시킬 수 있다. 셋째, 집중적인 미적체험의 공간적 요소는 좁고, 굽는 가로 또는 통로와 연결된 길을 따라 다양하게 열린 광장, 공간 속에 통제된 시야의 시작과 끝점, 시야를 구성하는 것을 돕는 명쾌한 감각을 초래하는 잘 정의된 공간, 공간의 특색과 시각적인 초점과 방향에 도움을 주는 랜드마크적 오브젝트, 가로에 면해있는 건축물의 표면과 디테일이 복잡한 건축물의 일반적인 통일성이다. 넷째, 미적요소는 개인에게 바람직한 자극으로 환경과 행동사이의 개연적 관계로서 개인은 미적으로 매력적인 도시 장소로의 회귀와 머무를 시간을 제공받아 활동이 늘어나고 장소가 활성화 된다.

즉, 픽취레스크의 특징요소가 도시공간에 적용된 어번픽취레스크의 속성은 공간의 불규칙성, 다양성, 복잡성, 균형과 일치, 상상의 공간 등이며 이러한 요소는 보행자의 미적체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따라서 도시공간의 간격이나 죽은 공간이 없는 개발의 연속성, 미적 감각을 달성하기 위한 복잡성, 균형의 일치, 복잡성과 질서의 균형 등에 의해 우리는 자극되어지고 유희해지며, 어떻게 도시형태가 미적으로 배치될 수 있는지 혹은 어떻게 더 많은 보행자가 활동을 증가할 수 있는지를 심리학, 지리학, 도시디자인 분야로부터 얻고자하는 것이 어번픽취레스크의 시작이다.

또한 이러한 생각으로부터 시작한 픽취레스크 전통과 환경미학 이론이 통합되어 현재 어번픽취레스크 이론이 제기되고 있다.¹¹⁾

이러한 의미를 통해서 과거 바로크의 기하학적이고 정

6) 김영재·김한배, 도시보행자가로의 체험에 있어서 ‘어번픽취레스크’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제36권 6호, 2009, p.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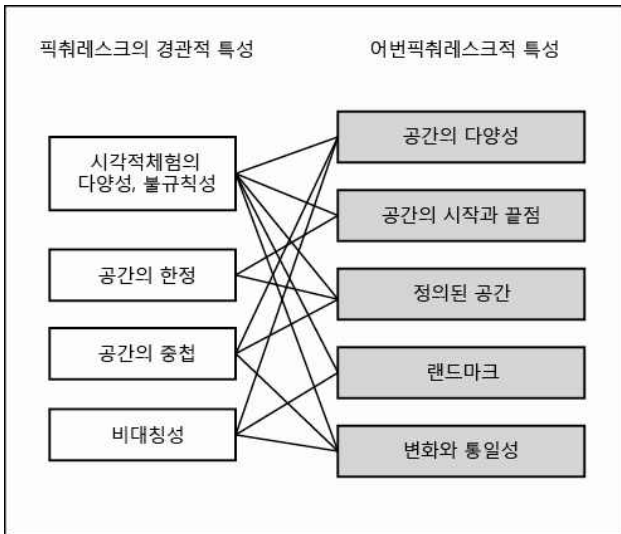
7) 김영재, 도시 보행자가로의 체험에 있어서 ‘어번픽취레스크’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논문, 2008, p.39

8) 김한배, 도시환경설계의 합리주의와 경험주의 사조에 대한 고찰(I),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지 Vol.33 No.3, 1998, p.193 재인용

9) 이성훈, 제품디자인 영역의 레트로 디자인 표현특성 및 적용방향, 한국기초조형학회논문집 13권 5호, 2012, p.357

10) 김영재, 도시 보행자가로의 체험에 있어서 ‘어번픽취레스크’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논문, 2008, p.40

11) Isaacs R, The Urban Picturesque: An Aesthetic Experience of Urban Picturesque Place, Journal of Urban Design, 2000, p.154 재인용



<그림 4> 픽춰레스크의 경관적 특성과 어번픽춰레스크적 특성

형적 권위성에 대한 회의는 영국을 중심으로 곡선적이고 유기적인 픽춰레스크한 도시공간을 구성하게 하는 계기가 되고 John Nash, Camillo Sitte, Raymond Unwin, Gordon Cullen 등이 대표적으로 도시공간을 어번픽춰레스크적으로 디자인하게 된다.

이들은 하나같이 도시를 활동하는 인간의 체험을 보다 다양하고 흥미롭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들이 디자인한 도시공간의 특징을 보면 가로에서 커브(Curve)를 이용해서 시점의 차단과 끌어들이므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게 하고 구불구불한 가로의 형태, 그로 인한 틈새에 따른 불규칙성과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공간에 대한 기대효과 혹은 호기심 등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도시 컨텍스트에 시각적인 연속성을 부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픽춰레스크 미학의 의미가 잘 표현된 영국식 정원의 경관특성을 바탕으로 도시공간으로 그 특성을 확대시켜 발전시킨 어번픽춰레스크의 공간적 특성을 도출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어번픽춰레스크의 공간적 특성을 보면 도시의 컨텍스트를 통한 시간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다양한 이미지에 따른 끝점, 중간점 등 랜드마크적인 요소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픽춰레스크의 경관적인 특성과 이러한 부분을 바탕으로 도시공간으로 발전시킨 어번픽춰레스크는 이미지적인 미학적 개념을 공간적 형태로 발전시켜 표현함으로써 사람들에게 도시의 다양함과 흥미를 체험할 수 있게 하였다.

3. 픽춰레스크 미학의 실내디자인 특성

앞서 언급한 픽춰레스크 미학을 바탕으로 한 어번픽춰레스크의 특성을 보면 과거 회귀에 대한 이상향을 바탕

으로 한 공간적 특성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픽춰레스크 미학이 어번픽춰레스크의 건축적 특성을 바탕으로 실내디자인에 적용된 사례를 조사해보았다. 그리고 사례를 통해 픽춰레스크 미학의 과거 회귀와 이상향에 대한 실내디자인의 표현 방법을 도출해 보았다.

3.1. 공간의 다양성

공간의 다양성은 계획도시가 되기 전의 좁고, 굴곡진 도로 또는 통로에 의해 연결된 경로에 따라 만들어진 개방 공간으로 골목길과 같은 공간의 다양함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공간속의 공간이라는 표현방법으로 골목길이나 좁은 통로 옆으로 늘어선 가로변 건축물과 식재 등에 의해 다양한 공간의 변화를 느낀다.



<그림 5> 골목길 지도와 골목길 풍경

을지로에 2011년에 들어선 CJ사육의 지하층에 조성된 CJ푸드월드를 보면 우리나라의 옛 마을의 모습인 골목길의 형태를 취하며 공간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6> CJ FOOD WORLD

CJ푸드월드를 총괄 기획한 노희영 CJ브랜드 전략 고문의 말을 들어보면 “어느 맛있는 마을에 온 것처럼 골목을 돌아다니며 맛 집을 찾아가는 재미를 느끼게 하고 싶었습니다. 세월이 묻어나는 편안한 공간인 동시에 세련된 공간이기를 원했습니다.”, “산책을 하듯 CJ푸드월드를 한 바퀴 돌면 비비고, 빙스, 로코커리 등 기존 CJ푸드월드의 외식 브랜드가 사이좋게 이웃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¹²⁾



<그림 7> CJ FOOD WORLD

12) <http://blog.naver.com/idasinc/140140195501>

이렇듯 넓은 공간 안에서 여러 공간을 잘게 쪼개고 이러한 작은 공간들을 일렬적이지 않고 우리가 일상에서 아니면 기억 속에 있는 골목과 같은 형태로 배치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향수와 친근함을 부여하고 또한 공간의 다양함을 줄 수 있다.

<표 2> 픽춰레스크 미학에 나타난 실내디자인 특성

표현특성	세부특성	표현방법
공간의 다양성	전통적, 향토적인 형태의 재현	골목길, 공간속의 공간
	형태뿐만 아닌 시대적 상황 재현	당시의 소품, 조명, 색채를 사용한 다양한 재미요소

3.2. 시작과 끝점

우리나라는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과거 고구려, 고려, 조선 등 여러 시대를 거쳐 지금은 그 땅위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 공사를 하기위해 땅을 파면 많은 유물들이 나오듯이 우리의 조상이 살던 터전 위에 우리가 다시 살고 있다. 이러하듯 우리는 과거의 역사 위에 다시 우리의 삶을 살고 있다.

이러한 의미는 공간의 시간성을 부여하여 각각의 공간의 맥락을 통해 다양한 시점과 많은 이야기를 부여한다.

각 공간마다 다양한 목적, 성격 등이 나타나며 이러한 맥락이 시작과 종결을 알려 준다.



<그림 8> 여의도 CGV

멀티플렉스 영화관을 주창하는 CGV영화관 중 최근에 문을 연 여의도점은 파벽돌로 멋스럽고 빈티지 분위기를 연출하고 복도형의 공간에 양옆을 아치형의 벽돌로 마감하고 가운데에는 가로등을

배치하여 중세 유럽의 거리를 거니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는 분위기를 자아낸다.¹³⁾ 현대적인 건물 안에 과거로 돌아간 듯한 입구부분은 80년대 브로드웨이를 연상시키는 전구를 사용한 사인물로 사람들을 유도하고 그 옆에는 CGV라는 사인을 강한 컬러와 팝아트를 연상시키는 거대한 스케일로 배치하여 시작점에 대한부분을 두드러지게 표현하고 있다.

내부에서도 각 상영관의 사인을 전구를 사용한 과거의 형태를 재현하여 통일감을 주고 음료 및 스낵을 파는 부스는 팝업부스의 형태를 이용해 보행로에 있는 노점상의 형태를 취함으로써 과거 80년대의 향수를 느끼게 하고 있다.

입구와 마찬가지로 출구부분도 대형 쇼핑센터의 특성에 맞게 입구와 동일한 사인을 사용하여 입구와 출구의

13) <http://www.cgv.co.kr/>



<그림 9> 여의도 CGV

경계를 허물었다. 하지만 메인 입구라는 차별은 팝아트적인 느낌을 주는 CGV사인으로 차별을 주고 있다.

이렇듯 공간에 시간성을 달리해서 성격과 목적은 명확하게 표현하고 인지할 수 있게 계획하고 긴 동선 축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거리를 거닐며 자연스럽게 문화생활을 즐기고 옛 추억을 되새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표 3> 픽춰레스크 미학에 나타난 실내디자인 특성

표현특성	세부특성	표현방법
공간의 시작과 끝점	정확한 방향성 제시와 그 안에서의 자유로운 동선	출입구의 상징물을 통한 정확한 공간의 시작점과 끝점의 경계 표현
	컨텍스트를 통한 분리	시간성을 통한 이질적인 공간 표현으로 공간의 안/밖을 구분한다.

3.3. 잘 정의된 공간

신도시의 주거형태를 보면 아파트, 주상복합 등 격자형의 틀 안에 기하학적인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그 안에서 Unit이라는 형태로 적어낸 듯한 획일화된 공간에 살고 있다. 하지만 점차 도시 안의 공간에서도 주거공간에 유기적인 동선, 다양한 공간적 분할을 통한 삶의 질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사람들의 요구에 도시의 편의적인 부분과 공간의 다양화의 절충안으로 과거 시골의 주거 형태와 신도시의 형태를 융합한 새로운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다.

공간 안의 제어된 전망으로 낮은 창문을 통해 보이는 경계나 울타리나 기둥에 의해 둘러싸임으로 폐쇄감을 완화하고 안전감을 도모한다.



<그림 10> 서포즈디자인(house in buzen)

BUZEN HOUSE는 주거공간으로 기본적인 격자형의 틀 안에 각 실을 다양하게 배치하여 여느 시골마을의 집들이 모여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리하여 공간 간의 다양한 소통과 프라이버시를 조절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되었다. 일반적인 칸막이로 공간이 분할되어 있

는 집의 형태가 아닌 공간 속의 공간이라는 형태로 칸막이를 통해 공간을 분할하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이 인지하고 최소한의 공간분할을 통해 프라이버시 영역을 만들어준다. 하지만 벽으로 전체가 막혀있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칸막이를 통해 소통이 자유롭게 이루어 질 수 있는 공간을 구획하여 명료한 공간의 감각과 전망의 틀을 제공하여 사용자의 입장을 배려하여 만드는데 도움을 준다.



<그림 11> 엔트러사이트 카페

상수동에 있는 엔트러사이트 카페는 오래된 신발공장을 개조해서 식음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킨 곳이다. 기존 공장에서 사용하던 컨베이어벨트를 카운터 테이블로 사용하고 옛날 모습을 최대한 그대로 보존하면서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주는 공간이다. 맨해튼의 첼시마켓을 벤치마킹하여 계획한 곳으로 과거의 공간을 현대의 감성에 맞게 재구성한 공간이다. 내부의 벽을 있는 그대로 사용하고 일부 부서진 곳은 그 형태를 그대로 이용해서 소통할 수 있는 창의 역할도 한다. 또한 이웃들과의 소통과 같이 서로 공유하고 연대할 수 있는 형태와 배치를 통해 공간의 실용성, 합리적인 디자인을 도모할 수 있다.

<표 4> 픽취레스크 미학에 나타난 실내디자인 특성

표현특성	세부특성	표현방법
정의된 공간	공간 분할을 통한 사적 공간과 공적공간의 조화	칸막이나 벽체 등을 사용하여 각각의 공간을 제공하여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제공한다.
	사람들과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배치	최소한의 경계를 두어 사람들에게 안에서는 밖을 조망하고 밖에서는 안의 실루엣을 보며 서로 소통하고 유대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3.4. 랜드마크적 공간

과거의 팝아트적인 색채와 형태 구성방법을 통해 시각적인 초점 포인트와 그로 인한 공간의 방향감각에 도움을 준다. 또한 공간의 다양함과 복잡함, 상상력 등의 여러 가지의 요소를 공간에 삽입하다보면 조잡해지고 사람들이 방향감각과 안정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과거 마을의 마을회관이나 보호수 앞의 평장과 같이 사람들이 모여서 담소를 나누고 약속장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랜드마크적인 공간의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부분은 시각적인 부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옛



<그림 12> 마을회관과 보호수

기억의 추억으로서 다가갈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랜드마크의 역할은 실내공간에서 분만 아니라 도시공간에서도 지표역할을 하며 도시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그림 13> 서천의 봄의 마을

“서천 봄의 마을”은 재래시장 이전에 따른 도심 공동화 문제를 해결하는 도시재생산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봄의 마을은 광장을 중심으로 각 동과 연계되는 동선이 이용자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해 안전하게

설계 됐으며 구시장의 부지에 공동화 문제를 도시재생의 방법으로 극복한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공간이다.

‘봄의 마을’이라는 명칭 또한 추운겨울이 지나 따뜻한 봄이 오듯 서천 원도심의 중심지로서 사람들이 모이고 활력이 넘치는 공간이라는 의미에서 계획되어졌다.¹⁴⁾ 이렇듯 오래된 재래시장이라는 사이트를 통해 사람들의 기억의 향수를 느끼게 하고 랜드마크로서의 장소를 제공하고 있다. 공간의 형태와 구성 역시 다양한 건물들을 자연스럽게 배치하여 일률적으로 보이지 않게 하였고 그 가운데 공간을 광장과 보호수를 떠올릴 수 있는 나무와 벤치를 배치하여 현대적으로 계획하였지만 친숙한 공간으로 디자인하였다. 그리고 광장을 중심으로 건물의 배치에서도 동선을 생각하여 서로 공유하고 소통이 가능하도록 계획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광장에서는 에코(eco)나눔 장터라는 자원순환의 중요성과 근검절약하는 소비문화를 정착시키는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봄의 마을은 현대적인 소재와 해체주의적인 형태의 건축물로 지어졌지만 이러한 현대적이고 미래적인 형태 아래 마을의 배치와 형태를 모티브로 구성하여 옛 기억의 향수와 편안함을 가질 수 있게 하였으며 또한 프로그램에서 근검절약의 정신을 가질 수 있게 계획하여 과거 선조들의 지혜를 또한 느낄 수 있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표 5> 픽취레스크 미학에 나타난 실내디자인 특성

표현특성	세부특성	표현방법
랜드마크적 공간	구심점적 공간	중심 집중 형태로 가운데는 광장과 자연물과 벤치 등을 배치하여 사람들이 서로 모이고 그곳에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랜드마크적인 역할을 한다.
	지역성을 중심으로 한 연계 프로그램과 공간의 상호성	가운데 공간을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의 공간들이 모여 서로 시너지효과를 줄 수 있는 프로그램과 공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계획한다.

14) <http://www.news-story.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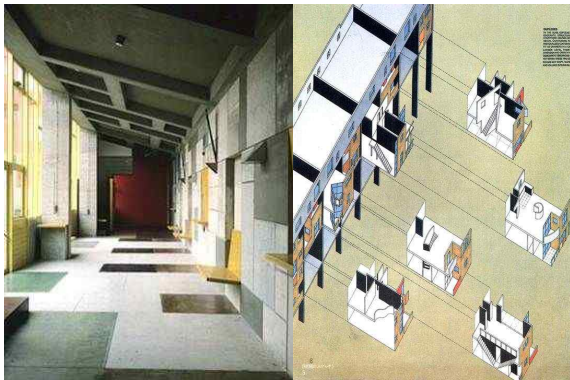
3.5. 변화 있는 입면의 통일성



<그림 14> 부산 감천동

부산의 감천동을 가보면 흔히 말하는 달동네로 지형에 따라 빼곡하게 집들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곳은 70년대에 생겨난 슬레이트 지붕에 시멘트 블록으로 만든 집의 형태로 되어 있다. 이제 오래되고 낡은 집을 여러 아티스트들이 모여 색을 칠하고 그림을 그려 넣음으로 해서 다시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알려짐으로 인해서 다시금 마을이 살아나게 된 좋은 예이다. 하지만 여기의 공간을 보면 새로운 공간이 아닌 7,80년대에 전국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달동네의 한 곳인 것으로 알 수 있다. 요즘은 재개발로 인해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우리 주변의 생활공간이었던 곳으로 기억 속에 존재하는 향수의 공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빼곡히 들어선 건축물의 재료, 색감, 기법 등을 변화 있게 하면서도 전체적인 통일성을 부여하여 시각적 다양성을 증대시킨다.



<그림 15> Mark Mack(Nexus World Housing-Fukuoka Japan, 1991)

1991년 일본에 계획된 주거단지로서 서로 다른 생활수준과 서로 다른 라이프스타일을 가진 거주자들을 위한 29개의 유닛은 단층형, 복층형, 그리고 중정형 세 개의 주거 유형은 서로 복잡하게 얽히면서 발전되어지면서 다양한 표정을 가진 건축적 공간을 만들어 낸다.

미리 설정된 도시적 형태에 적응하는 단층형은 그 입구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플라자의 공적 영역과 연결된다. 내부의 배치는 L 자형 건물 내에서 채광을 고려하며,

주거 유닛의 치수와 방향성에 있어서의 동등성은 현대의 정치적 경향을 나타낸다. 제한된 재료의 사용은 건축적 아이덴티티와 연계된 언어를 만들어 내며, 다양한 재료와 색채는 전통 일본 문화의 요소를 반영하며 개인의 특이성을 창출한다.

이렇듯 다양하고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공간을 이루고 있지만 크기는 하나의 같은 공동체의 공간으로 여겨지는 통일성을 부여한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내부의 각각의 유닛은 서로 다른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컬러도 전통적인 색채를 사용하여 통일감을 주지만 전통성의 범위 안에서 다양한 컬러를 사용하여 다양한 변화를 주고 있다.



<그림 16> 김종규, 플로리안 베이겔(재즈클럽 스토리빌)

헤이리 마을의 스토리빌은 주변 지형에 따라 계단식의 형태로 건축되었다. 외부에서는 하나의 매스로 보이지만 2층으로 올라가면 계단식의 형태에 여러 개의 매스가 모여 있다. 지형의 특징과 사람들의 이용목적에 따라 계획되어진 공간으로 내부에서 시퀀스가 느껴지는 경사로를 따라 올라오면 내, 외부의 모호한 공간으로 연결된다. 1층은 하나의 매스가 2층에서는 2개의 매스로 분리되어 다양한 기능의 공간을 통해 통일성을 바탕으로 변화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그리고 2층은 공간과 공간사이를 외부로 구성하고 사이에 가로등과 같은 조명을 이용해서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서로 다른 건축물로 인식하게 한다.

<표 6> 픽취레스크 미학에 나타난 실내디자인 특성

표현특성	세부특성	표현방법
변화 있는 입면의 통일성	형태의 통일과 그 안의 기능적 변화	박공형태의 입면을 통해 익숙함을 부여하고 입면에 색채와 오브제, 창문 등에 변화를 주어 사람들에게 익숙함 속의 새로움을 제공한다.
	선형적 기억을 통한 공간 계획	나이가 많은 어른들에게는 익숙한 공간의 형태를 통해 기억의 향수를 주고 나이가 어린 젊은 층에게는 새로움과 신제품과 같은 참신함을 부여하고 세대 간의 소통과 다양한 계층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4.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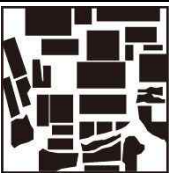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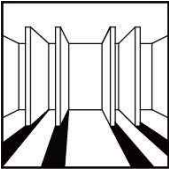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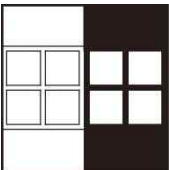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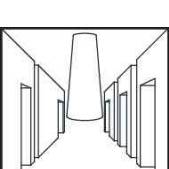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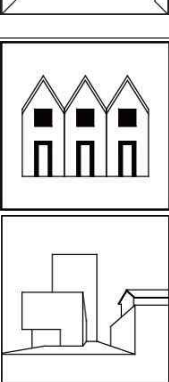
본 연구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문화와 환경의 변화에 그 중요성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픽취레스

크 미학에 나타난 실내디자인의 특성은 잠시 흘러가는 유행이 아니라 문화와 사조로서 나타나는 하나의 흐름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픽춰레스크 미학의 발생배경과 특성을 고찰해보았다. 그리고 픽춰레스크 미학의 특성이 다양한 공간적 특성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실내디자인에서 어떻게 특성이 표현되어지고 있는지를 고찰하였으며, 연구를 통해 도출된 적용 방법은 다음과 같다.

<표 7> 픽춰레스크 미학에 나타난 실내디자인 특성

레트로디자인의 동향에 따른 공간적 특성		
특성	표현방법	공간적 특성
다양성	골목길, 공간 속의 공간	
	당시의 소품, 조명, 색채를 사용한 다양한 재미요소	
시작과 끝점	출입구의 상징물을 통한 정확한 공간의 시작점과 끝점의 경계 표현	
	시간성을 통한 이질적인 공간 표현으로 공간의 안/밖을 구분한다.	
정의된 공간	칸막이나 벽체 등을 사용하여 각각의 공간을 제공하여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제공한다.	
	최소한의 경계를 두어 사람들에게 안에서는 밖을 조망하고 밖에서는 안의 실루엣을 보며 서로 소통하고 유대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랜드마크	중심 집중 형태로 가운데는 광장과 자연물과 벤치 등을 배치하여 사람들이 서로 모이고 그곳에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랜드마크적인 역할을 한다.	
	가운데 공간을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의 공간들이 모여 서로 시너지효과를 줄 수 있는 프로그램과 공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계획한다.	
변화와 통일성	박공형태의 입면을 통해 익숙함을 부여하고 입면에 색채와 오브제, 장문 등에 변화를 주어 사람들에게 익숙함 속의 새로움을 제공한다.	
	나이가 많은 어른들에게는 익숙한 공간의 형태를 통해 기억의 향수를 주고 나이 어린 젊은 층에게는 새로움과 신제품과 같은 참신함을 부여하고 세대 간의 소통과 다양한 계층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픽춰레스크 미학에 나타난 실내디자인 특성으로 과거 회귀 이상향의 유토피아적인 성향에 나타난 도시공간적인 어번픽춰레스크의 공간적인 특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공간적인 특성은 공간의 다양성, 시작과 끝점, 정의된 공간, 랜드마크, 변화와 통일성으로 정리하여 나타낼 수 있었으며, 각 특성에 따른 세부 특성과 표현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간의 다양성은 골목길과 같이 과거 유기적인 형태의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난 마을의 형태로서 집과 길의 조화로운 구성 형태를 바탕으로 공간 속에 도시의 축소판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은 옛 기억에 대한 향수와 과거의 안정감에 대한 그리움의 따른 무의식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시작과 끝점은 7~80년대의 과도기적인 시대상과 팝아트적인 유행에 대한 재 경험의 형태로 비춰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공간에 대한 명확한 구분과 팝아트에서 보여지는 강렬한 색상, 텍스트 사용, 과장된 형태의 표현 등은 이러한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셋째, 정의된 공간은 우리나라가 아파트 등 신도시의 형태가 아닌 과거 주택에 모여 살던 모습에서 비롯된 표현 특성으로 이웃사촌의 관계와 같이 서로 어울리며 살던 형태로서 각각의 공간이 막힌 사적인 공간으로만 이루어진 모습이 아니라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이 모호하면서도 심리적으로 구분되는 공간의 형태로써 서로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는 정의된 공간을 표현하고 있다.

넷째, 랜드마크적인 공간 특성은 우리나라나 유럽 등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나타나는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과거에 마을 단위의 형태로 사람들이 모여 살았으며, 가운데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집들이 모여 있는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중세 유럽의 도시 형태를 보면 교회나 성당을 중심으로 마을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중심적인 랜드마크의 형태를 이루고 현재도 꾸준히 표현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과거의 형태가 선형적 기억을 통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특성인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변화와 통일성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통일감을 갖춘 형태로서 안정감을 갖는다. 과거 산업화 시대에 나타난 주거의 형태는 급속한 발전과 폭발적인 수요에 따라 획일적인 형태와 실용성을 바탕으로 기계적으로 단시간에 생겨나게 되었다.

이렇게 계획된 공간의 형태는 보편화되고 익숙해져서 사람들에게 편안함으로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획일화된 형태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각각의 환경에 따라 부분 변경된 결과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

지금까지 실내디자인에 나타난 픽춰레스크 미학의 특성을 살펴보면 과거 회귀 이상향에 대한 유토피아적인 부분이 현대에 와서 공간의 다양성, 시작과 끝점, 랜드마크적 요소, 변화와 통일성으로 표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과거의 것이 요즘에 다시 부활하고 표현되는 것은 시대적인 흐름에서 오는 영향이 크다. 하지만 앞서

연구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과거의 것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의 흐름과 경향에 맞게 변화시켜 표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역사의 흐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조는 클래식과 모던이 반복되며 차츰 그 시대에 맞게 조금씩 변화듯이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픽취레스크 미학에 따른 실내디자인의 특성은 과거의 향수가 느껴지는 아날로그적인 바탕 위에 최신의 기술과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주는 디지털적인 시스템이 결합하여 장년층에게는 향수를 주고 젊은 층에게는 또 다른 새로움을 주어 세대 간의 소통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이시대의 단절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적인 디자인이 될 수 있을 거라 사료된다.

참고문헌

1. 그림이 된 건축, 건축이 된 그림, 김흥기 역, 아트북스, 2007
2. 자연, 풍경, 그리고 인간, 마순자 역, 대우학술총서, 2000
3. Isaacs R, The Urban Picturesque: An Aesthetic Experience of Urban Picturesque Place, Journal of Urban Design, 2000
4. 황주영, ut pictura hortus : 18세기 영국 풍경식 정원에 관한 연구, 미술사학보 26집, 2006
5. 김영재·김한배, 도시보행자가로의 체험에 있어서 '어번픽취레스크'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제36권 6호, 2009
6. 김영재, 도시 보행자가로의 체험에 있어서 '어번픽취레스크'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논문, 2008
7. 김진희, 영국 풍경식 정원의 미 '픽취레스크'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1995
8. 김한배, 도시환경설계의 합리주의와 경험주의 사조에 대한 고찰(I),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지 Vol33 No.3, 1998
9. 이명기, 레트로 디자인 고찰 : 자동차 스타일을 중심으로, 디자인학연구 통권 제39호 Vol.13 No.4, 2000
10. 이성훈, 제품디자인 영역의 레트로 디자인 표현특성 및 적용방향, 한국기초조형학회논문집 13권 5호, 2012.10
11. 이은정, 픽취레스크 이미지 적용에 의한 도시 가로디자인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 춘계학술대회논문집, 2012
12.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
13. <http://blog.naver.com/idasinc/140140195501>
14. <http://www.cgv.co.kr/>
15. <http://www.news-story.co.kr/>

[논문접수 : 2013. 02. 27]

[1차 심사 : 2013. 03. 19]

[2차 심사 : 2013. 04. 02]

[3차 심사 : 2013. 05. 09]

[게재확정 : 2013. 06. 07]